

# 외국인 주민 정착·권익지원, 문화 다양성 높인다

## 광주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열어 올해 정책 방향 공유...“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

호남 최초로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올해 지역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향상을 지원하며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3월 29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4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인 외국인주민과 신설 후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광산구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는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광주시교육청, 광산경찰서, 광산구가속센터,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관·단체 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광산구는 지난해 외국인주민과의 대화, 정책공유회, 주민회의(타운홀미팅),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등을 통해 발굴된 시책을 중심으로 수립한 '2024년 외국인주민 지

원 기본계획'을 공유했다.

△다양성이 문화와 경쟁력이 되는 인권친화 도시 △정착 지원 △역사와 문화로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고려인마을 등이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이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선·이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다양성 축제인 '세계시민 문화한마당',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을 연결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외국인 주민 명예토장단 운영 등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도 엿보인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역사회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도록 돕는 러시아어 이종언어 양성 과정, 미래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덜어줄 외국인 주민 '원스톱 일자리 체계 구축', 일터·살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경청상담소'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인마을을 광주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야기 관광코스 운영, 고려인 이주역사 소재 상설공연 개발, 테마거리 조성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각 기관단체를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광산구가 추진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법고용노동

청 등 관계기관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시책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세우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제14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회)는 3월 27일 제14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광양 출신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강대선 신화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양효서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정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간 예탁·예수를 가능케 하여 기금을 통해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보유액 중 예비비 초과분에 대한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하였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무등산 평촌마을, 광주 유일 '농협 팜스테이마을' 지정

### 농협광주본부, 지정 현판식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무등산 평촌마을이 광주 도심권 유일의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됐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평촌마을에서 이현호 총괄지역본부장과 김순택 광주농협조합장, 정태영 마을위원장,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팜스테이마을 현판식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팜스테이마을'은 도시민들이 농가에서 숙식하며 농사·생활·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를 탐방하고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을 결합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이다.

무등산 북쪽 자락에 있는 평촌마을은 반딧불이와 멸종위기종 수달이 서식하는 등 생태환경이 우수해 환경부가 2015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자기 공방 체험, 감자·옥수수 등 농산물 수확 체험, 곤충 탐사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3월 29일 광주시 북구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이현호 총괄지역본부장과 김순택 광주농협조합장, 정태영 마을위원장,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팜스테이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농협광주본부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현호 본부장은 "광주 유일의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팜스테이마을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농촌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Philo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